



출판계,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 따른 결의문 채택 “독서 증진에 기여하는 도서정가 안정화 위해 최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대행 윤철호)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박정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민병문), 한국아동출판협회(회장 강기준),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김진환) 등 출판 관련 단체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도서정가제법이 결과적으로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법 개정 이전의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책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출판계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결의문에 담아냈다.

출판단체는 결의문에서 “도서정가제의 확립은 무너진 출판생태계 복원과 출판 진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고, 출판이 문화의 원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출판 산업의 발전은 문화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 도서정가제 법률은 업계와 정부, 국회가 모두 뜻을 모아 독자의 관점에서 의논하고 합의한 결실인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법률이며, 도서정가제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출판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출판의 다양성 확보와 좋은 책 출판과 보급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해 도서가격의 안정화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동네 작은 서점 활성화 ▲책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창작의욕 고취와 안정적 저작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 저작물 생산 장려 ▲국민의 독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도서관과의 상생 협력 강화와 범사회적 독서진흥 운동 참여를 통해 책 읽는 사회 정착 ▲한 나라의 지식과 문화의 척도인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확립 등에 노력할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

1. 우리는 출판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출판의 다양성 확보와 좋은 책 출판과 보급에 노력한다.
2. 우리는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 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여 도서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동네 작은 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4. 우리는 책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창작의욕 고취와 안정적 저작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 저작물 생산을 장려토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국민의 독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도서관과의 상생 협력 강화와 범사회적 독서진흥 운동 참여를 통해 책 읽는 사회 정착에 노력한다.
6. 우리는 한 나라의 지식과 문화의 척도인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확립에 다 함께 노력한다.

2014년 6월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 장 고 영 수
(사)한국출판인회의	회 장 대 행 윤 철 호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 장 박 정 태
(사)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 장 민 병 문
(사)한국아동출판협회	회 장 강 기 준
(사)한국학술출판협회	회 장 김 진 환

것을 결의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파행적인 유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도서정가제법률)은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의 정가제 적용 ▲도서 할인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